KIEP 지역경제 포커스
REGIONAL ECONOMIC FOCUS
2014년 8월 14일 | Vol. 8 No. 40
ISSN 1976-0507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감소 배경과 전망

손성현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Tel: 3460-126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동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감소 배경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3년 FDI 유입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규모는 감소하였음.

- 2008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세계 FDI 유입 규모는 2013년 1조 4,520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음.
- 반면 FDI 유입금액 기준으로 중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입 규모가 감소하면서 역내 FDI 유입 감소로 이어졌음.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 감소의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중동지역의 정치불안 가중, 유가 상승동력 상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의 강화, 실질적인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정정불안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자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야기됨.
-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동력 상실로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무역수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랍의 봄 이후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정권 안정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자국민 우선고용정책 강화 역시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전담기구 설치, 세제혜택 부여, 경제자유지역 설립 등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2014~16년 사이의 세계 FDI 유입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정치 위험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상반되는 노동정책 추진,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상실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1.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동향

■ UNCTAD의 2014년 세계 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4)에 따르면, 2013년 세계 FDI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1)]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세계 FDI 유입 규모는 2013년 1조 4,520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9.2% 증가하였음(그림 1 참고).
-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3년 유럽과 북미의 FDI 유입 규모는 각각 2,460억 달러, 2,500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3.9%, 2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선진국의 세계 FDI 유입 비중도 2012년 38.8%에서 2013년 39.0%로 소폭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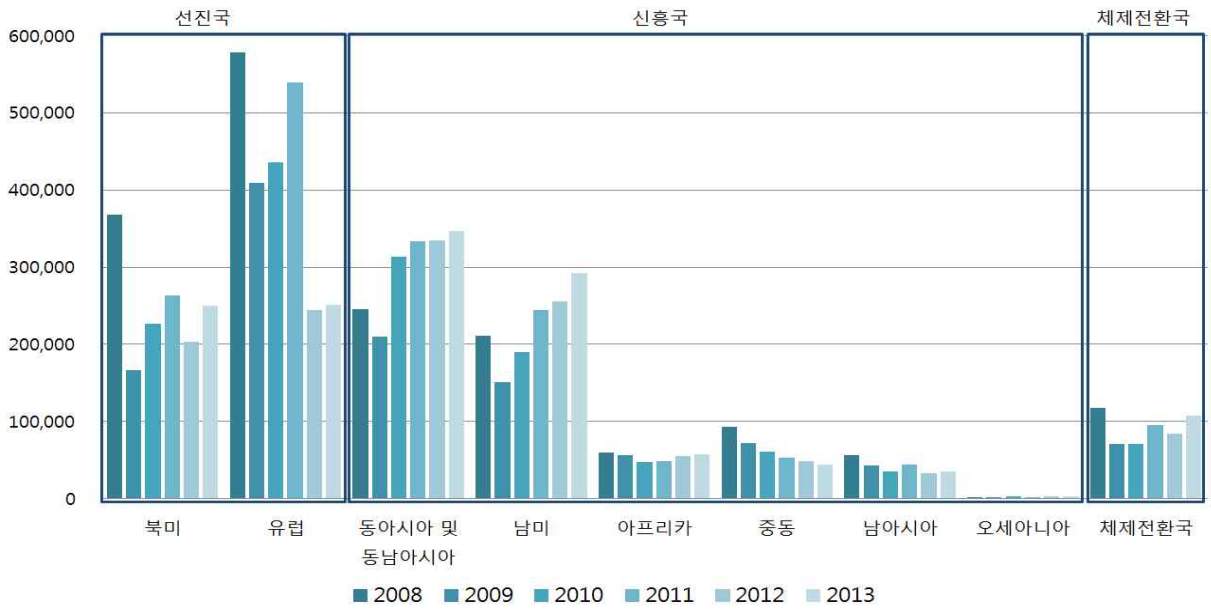
- 2009년 이후 신흥국은 건실한 경제 성장세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입 규모가 증가하였음.

○ 신흥국 중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FDI 유입 규모가 3,470달러로 가장 컸으며, 남미가 2012년 2,560억 달러에서 2013년 2,920억 달러로 높은 증가율(14.1%)을 보였음.

- 기타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액은 2012년 840억 달러에서 2013년 1,080억 달러로 28.6% 증가했으며, 전 세계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에서 7.4%로 증가하였음.

그림 1. 세계 지역별 FDI 유입 동향

(단위: 10억 달러)



자료: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pp. 205-2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36.

■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3년 FDI 유입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중동지역의 FDI 유입 금액은 감소하였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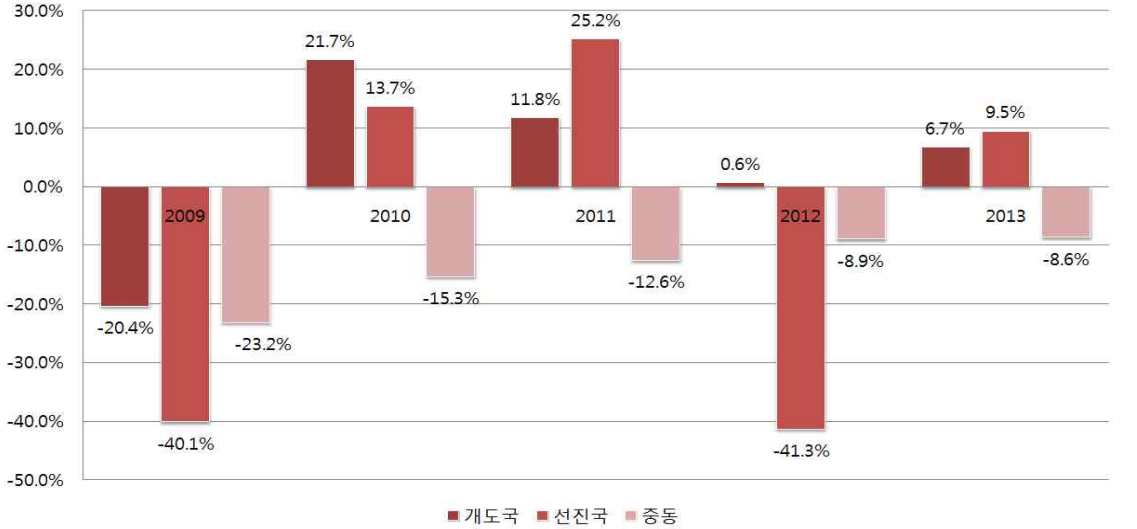
- 최근 FDI 유입은 전 세계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으로 유입된 FDI 규모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동의 FDI 유입액은 2008년 935억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5년 연속 감소해왔음.

- 2013년 중동 FDI 유입액은 44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485억 달러였던 2012년보다 약 45억 달러 감소한 규모임(그림 2 참고, 전년대비 -8.6%).
- 2013년 중동의 FDI 유입액 감소는 역내 FDI 유입의 절반 이상(2013년 기준, 53.9%)을 차지하고 있는 GCC 지역으로의 유입액 감소에 기인함.[3)]

그림 2. 중동과 세계의 FDI 유입 증가율 추이(2009~13)

(단위: 10억 달러)



자료: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p. 205-2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중동 FDI 유입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급감이 GCC 지역과 중동 전체의 FDI 유입 규모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GCC 지역으로 유입된 FDI 자금은 2008년 616억 9,900만 달러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 5년 연속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13년에는 238억 9,000만 달러에 그쳤음(그림 3 참고).[4)]

2) UNCTAD는 중동을 서아시아(West Asia)로 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UAE가 포함되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동으로 표기함.

3) GCC는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협력체임. GCC 국가들 대부분이 산유국으로, 중동 전체 GDP의 48.5%(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4)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207.

○ 2013년 GCC 지역의 FDI 유입 규모는 2008년 대비 61.3% 감소한 것이며, 연평균 증가율(CAGR)은 -17.3%에 이르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GCC로 유입된 FDI 총액(2,371억 5,300만 달러)의 약 60%(1,429억 3,500만 달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됨.
- GCC 지역 FDI 유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입 금액 감소가 GCC 지역 감소추세의 가장 큰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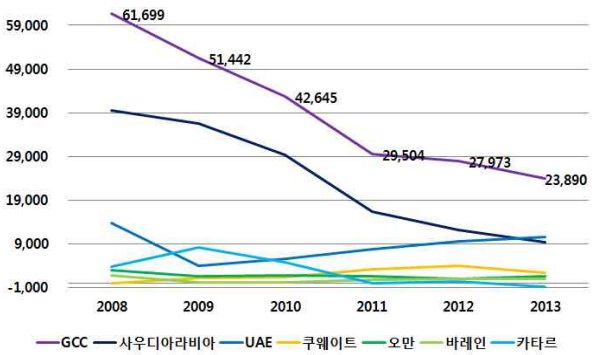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의 2008년 FDI 유입액은 394억 5,600만 달러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에는 92억 9,800만 달러(2008년 대비 1/4 수준)가 유입되는 것에 그쳤음.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중동 및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각각 70.9%, 50.7%, 3%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3년에는 각각 38.9%, 21.0%, 0.6%로 축소되었음(표 1 참고).

■ 본고에서는 201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FDI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의 감소 배경을 대내외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도출해보고자 함.

그림 3. GCC 국가별 FDI 유입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207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1.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액의 지역별 비중 변화

(단위: %)

	GCC	중동	전 세계
2008	63.9%	42.2%	2.2%
2009	70.9%	50.7%	3.0%
2010	68.5%	48.0%	2.1%
2011	55.3%	30.6%	1.0%
2012	43.5%	25.1%	0.9%
2013	38.9%	21.0%	0.6%

주: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지역별 FDI 유입 총액 대비임.
자료: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p. 205-208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감소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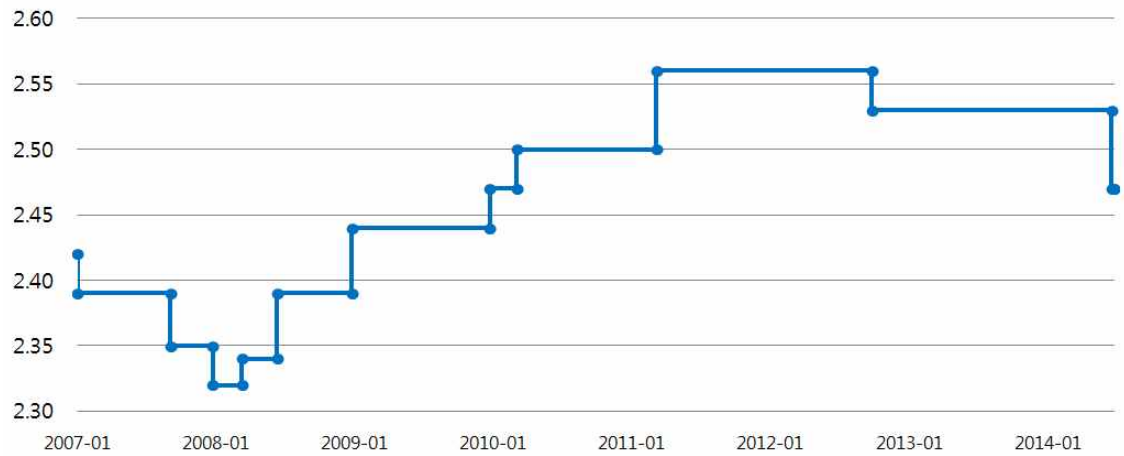
가. 대외적 요인

■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 내 정정불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CC 지역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

비아로의 역내 정정불안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자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이 야기됨.[5)]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리비아로 전이되어 30년간 장기독재를 이어온 카다피 정권 축출로 이어졌고, 이후 이집트, 시리아 등으로 확산되었음.
- 북아프리카 및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동의 시민운동은 2011년 초 이후 바레인,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등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GCC 지역에서 정치 개혁 및 종파간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산발적인 시위로 이어져 역내 정치적 위험을 가중시켰음.
- 2011년 12월에는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제재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에 대한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킨 바 있음.
- 이후에도 시리아 내전 장기화,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의 군부에 의한 축출, 리비아 치안상황 악화 등 중동 전반의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음.
- 중동 내 정정불안 증가는 단순히 해당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CC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요구, 시리아, 이라크 등 인접한 국가로부터의 테러 및 과격 세력 유입과 지정학적 위험 등의 형태로 GCC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즉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이러한 영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6)]

그림 4.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위험(Country Risk)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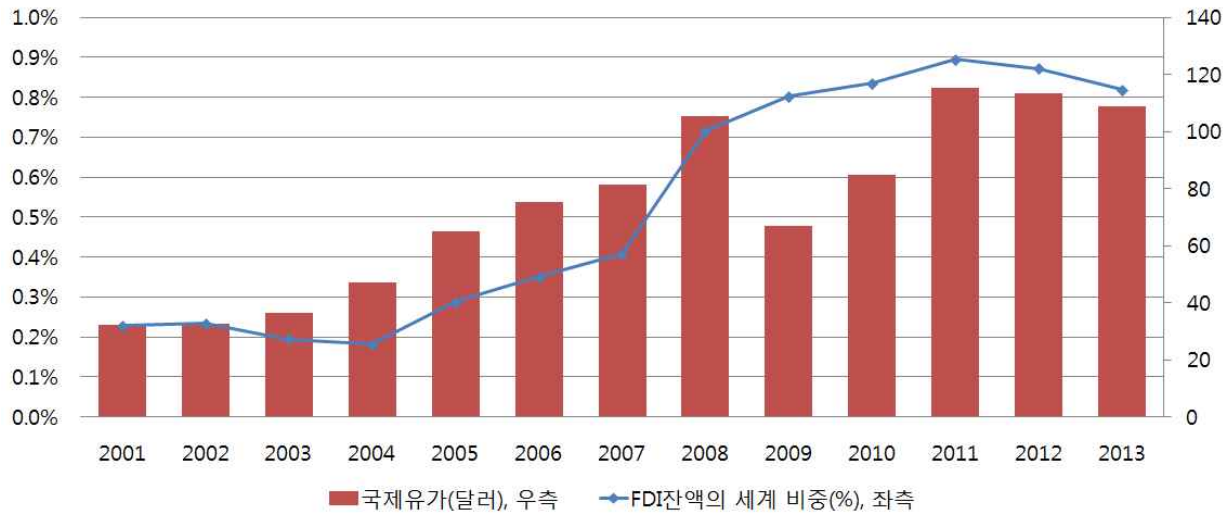
주: IHS Connect는 국가위험의 정도를 0-5 사이의 점수로 표현하였으며, 5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IHS Connect, Country Risk, http://connect.ihs.com/Risks(accessed July 17, 2014).

5)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59.
6) Busse, Matthias, Carsten Hefeker(2005), "Political Risk,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Hamburgisches Welt-Wirtschafts-Archiv DISCUSSION PAPER; Burger, Martijn, Elena Ianchovichina, Bob Rijkers(2013), "Risky Business-Political Instability and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rab World," IMF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716 등의 연구에서 정치적 리스크와 FDI 유입 간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동력 상실로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률, 재정수지, 무역수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연결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49.7%이며, 정부 재정수입에서 에너지 수입(收入) 의존도는 91.8%에 달하였음.[7)]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유가 및 원유 생산량이 경기 상황과 투자 유입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의 유가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된 FDI 잔액의 세계 비중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음(그림 5 참고).
  - ○ 2011년 국제 유가는 115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109달러를 기록하였음.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FDI 잔액의 세계 비중도 감소추세로 돌아섬.[8)]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지역 산유국의 FDI 유입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있음.[9)]

그림 5. 국제 유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잔액 변화



주: 유가는 2013년도 환율 기준.
자료: BP(2014), "Statistical Review data workbook" , http://www.bp.com/content/dam/bp/excel/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4/BP-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2014_workbook.xlsx (accessed July 18, 2014); UNCTAD, STATISTICS, Inward and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 annual, 1980-2012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accessed July 18, 2014).

7) World Bank. data. Natural gas rents(% of GDP), Oil rents(% of GDP) http://data.worldbank.org(accessed July 18. 2014).
8) 유가는 2013년도 환율 기준. BP(2014), "Statistical Review data workbook," http://www.bp.com/content/dam/bp/excel/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2014/BP-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2014_workbook.xlsx(accessed July 18, 2014).
9) Bossdorf, Maximilian Christian Engels and Stefan Weiler(2013), "EU GCC INVEST REPORT 2013,"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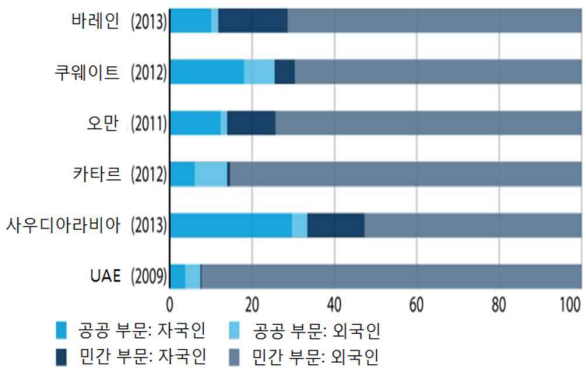
나. 대내적 요인

■ 아랍의 봄 이후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정권 안정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자국민 우선고용정책 강화가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GCC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적절한 직업 능력을 갖춘 자국 인력이 부족하였음.
- GCC 지역 자국민은 근무여건이 좋고 임금이 높은 공공 부문으로 흡수된 반면, 업무 강도가 높은 민간 부문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으면서 자국인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한계에 달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그림 7 참고).

그림 6. GCC 국가의 부문별 고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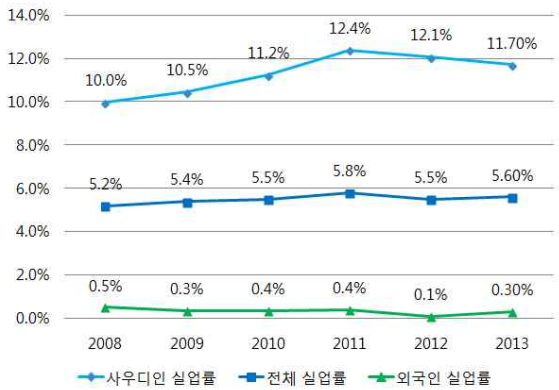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xford Analytica*(2014), "Gulf drive to reduce unemployment faces obstacles," (May 14)

그림 7.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CDSI, Statistical sector, Tables & indicators, http://www.cdsi.gov.sa/english/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download&gid=1268&Itemid=162 (accessed July 18, 2014).

- 아랍의 봄을 통해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가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존에 실행해온 자국민화정책을 강화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였음.[10)11)]
  - 니타카트 제도는 기존의 자국민화정책에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고 사우디인 고용 비율에

10) 자국민화정책은 민간 부문의 외국인 고용을 자국민으로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상한 쿼터 지정, 특정 부문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1) 니타카트는 아랍어로 '범주', '범위'를 의미하며,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의 준수 정도에 따라 민간 기업을 Excellent, Green, Yellow, Red 4개로 분류함. 고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기업(Excellent, Green)에 대해서는 Yellow, Red 기업의 동의 없이 외국인 노동자 스카우트를 허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배정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함. 자국민 고용기준을 잘 이행하지 못한 기업(Yellow, Red)에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불가, 노동 비자 갱신 불가 등의 제재를 부과함.

대한 정확한 파악도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2011년 6월 도입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본 제도의 실행을 통해 2014년까지 신규 고용의 92%인 112만 개의 일자리를 사우디인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12)]

-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불법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을 추방하였고, 앞으로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벌금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니타카트 제도 실행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인력난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이는 임금은 높으나 생산성이 낮은 사우디인의 적정 고용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현지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진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전담기구 설치, 세제 혜택 부여, 경제자유지역 설립 등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하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법률과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전담기구인 SAGIA(Saudi Arabia General Investment Authority)를 설치하여 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주베일 산업도시(Jubail Industrial City), 얀부 산업도시(Yanbu Industrial City), 지잔 경제도시(Jizan Economic City)를 비롯한 약 30여 개의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 기업 육성 및 고용증대정책, 느리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자국에 유익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최근 자국민 실업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외국 중소기업의 자국 진출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계획서, 자국인 고용 계획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환경은 악화되고 있음.[13)]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상업 면허(Commercial Registration)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투자 면허 보유 기준 외국 기업은 2013년 12월 9,265개에서 2014년 5월 말 6,000개로 감소함.[14)]

-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정책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사우디아라비아 사업환경의 척도가 되는 Doing Business Index 종합 순위와 세부항목별 순위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음(표 2 참고).

12) SUSRIS(2011), “Saudi Arabia Economics - June 2011 - BSF.” (July 21)
13) 이용진(2013), 「신규 사우디 투자진출 절차 까다로워져」, 『KOTRA 글로벌 윈도우』. (11월 30일)
14) EIU(2014), “Mixed GCC performance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July 1)

표 2.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환경(Doing Business) 순위 변화

(단위: 세계 순위)

	2010	2011	2012	2013
사업환경 종합 순위	13	11	12	22
창업	13	13	10	78
건축인허가	33	14	4	32
재산권 등록	1	1	1	12
자금 조달	61	46	48	53
투자자 보호	16	16	17	19
세금 납부	7	6	10	3
국제 교역	23	18	18	36
법적분쟁 해결	140	140	138	124
퇴출	60	65	73	107

자료: IFC, Doing Business Report 각 호(2010~1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향후 전망

■ 2014~16년 기간 동안 세계 FDI 유입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동 내 다양한 정치적 불안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FDI 유입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FDI 유입액은 선진국 주도로 2014년 1조 6,000억 달러, 2015년에 1조 7,500억 달러, 2016년에는 1조 8,5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5]
- 신흥국은 2014년 -1.8%의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 1.6%, 2016년에 2.9%로 FDI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16]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역내 정치적 불안정이 이러한 FDI 유입 증가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 최근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가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 국가 세력이 자국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라크 남서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접경지역인 아라르(Arar)에 헬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3,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음.[17]
- 역내 불안 요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이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지 국가 내부적으로도 민주화, 왕권 이양,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 현재 90세의 노령인 압둘라 국왕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홍이 붉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부적 정치 위험도 상존하고 있음.[18]

15)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24.
16) *Ibid.,* p. 24.
17) Spencer, Richard(2014), "Saudi Arabia sends 30,000 troops to Iraq border," *the Telegraph.* (July 3)
18) 김기용(2014), 「왕위 계승 2순위 놓고 사우디 '왕자의 난' 조짐」, 『동아일보』. (5월 30일)

- MIGA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중동 전반의 정치적 불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19]

○ GCC 지역 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왕권 이양, 높은 청년실업 및 복지), 쿠웨이트(의회와 정부 간 갈등, 종파 간 갈등), 바레인(종파간 갈등) 등은 상대적인 정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남.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이후(post-oil) 시대 대비를 위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개선 및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민 우선 고용 및 자국 기업 보호정책 강화 등으로 FDI 유입의 높은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국가들은 외환보유고 증가보다는 기존의 석유 의존적 산업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다각화를 위해 FDI 유입을 더욱 증가시키고자 함.
- SAGIA는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를 위해 상업 면허 발급 기준을 다시 완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도 도입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함.[20]
- 그러나 니타카트 제도 도입 이후에 외국인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불법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제조업 및 건설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숙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자국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외국인 고용 규제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FDI 유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그동안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통해 자국 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허용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동 분야의 FDI 유입은 감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지역의 북미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CC 국가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분야에 다국적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의 미쓰비시, 영국의 BP, 쿠웨이트는 미국의 다우 케미컬(The Dow Chemical Company), 카타르는 쉐브론 필립스(Chevron Phillips Chemical), 셸(Shell)과 협력하고 있으며, UAE는 덴마크의 보리알리스(Borealis), 대만의 CPC 등과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21]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내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로 천연가스와 같은 공급원료 부족과 원가 상승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19) MIGA(2013), "World Investment and Political Risk," p. 23.
20) *Arab News(*2014), "FDI drops but Kingdom upbeat on investments." (June 27)
21) 조성환(2007),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동향」, *The Plantech Journal*, 제2-1호, pp. 10~19.

- 이와 함께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투자 매력도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2]

○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수출도 가능해지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걸프 국가의 가격경쟁력은 향후에도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성적인 천연가스 공급 부족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자국 내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는 어려우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으로의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23]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SABIC은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엑손모빌(Exxonmobil), 센트리카(Centrica) 등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석유화학 분야 FDI 유입은 감소하고 북미지역에 대한 FDI 유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4] KIEP

22)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p. 59.
23) *Ibid.*, p. 59.
24) *Ibid.*, p. 60.